

# 콩나물 <Ⅱ>

**“콩나물” 우리는 소비자가 있고 이윤이 있으니 재배를 한다.  
도대체 원가는 얼마나 들고 이윤은 얼마나 될까?  
당신은 그 계산을 해 본적이 있는지?  
아직 못해 보았으면 시간이 없어서 일까?  
아니면 계산을 해볼 필요가 없어서 일까?**

## 1. 경영이란 무엇인가?

**경**제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흔히 쓰인다.

그 경제라는 단어는 경제제민(經世濟民)의 준말이라고 국어 사전에는 쓰여있다. 경제라 함은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고 제민이라 함은 어려운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보아 세상의 모든일이 사람과 얽혀 있는것을 경제라고 풀이해도 무방할것 같다.

물론 이것은 국어학적 차원에서 풀이한 말이며 경제학 에서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 경제의 의미는 보통 두가지로 구분 되는데 하나는 생활로써의 경제 즉 경제생활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조직 또는 질서로써의 경제 즉 경제조직 또는 경제단위의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생활이라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것이며 이것을 최소비용의 원

칙이라 하며 경제성 원칙이라 한다.

여기서 전문적으로 경제를 논하기는 어렵다. 경제학은 생활의 기본이면서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그 의미만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경영이라는 말은 말그대로 경제를 운영한다는 말이다. 경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므로 작은 노력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수록 효과적인 경영을 하는것이 될것이다.

그러면 현재 콩나물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정도 경제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힘든 노력에 비하여 얻어지고 있는 이익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먼저 콩나물업 경영의 현주소부터 파악하여 보자.

## 2. 콩나물업 경영의 현실태

**콩**나물업은 어느 법규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것이 아닌 자유업이다.

누구든지 콩나물 재배를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그리 큰 자본 없이도 자유롭게 할수가 있다.

거래처와의 공급관계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공급계약을 맺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물건을 대주고 팔아서 수급하여주면 되는 원초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다만 주객사이의 인과관계로 맺어있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이 업계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덤핑이 심한 장사도 드물다.

콩나물의 재배는 기계를 이용하여 단시간 내에 얼마든지 만들어 내는 제조가 아니다. 반드시 종자에 싹을 틔우고 최소한 7~10일의 성장기일이 소요되어야만

콩나물로써의 상품이 되기 때문에, 콩 씨앗을 물에 담글때 이것이 콩나물이 되어 상품으로 출하되는 날의 수요의 증감에 관하여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항상 생산량을 추측에 의한 수요의 예상에 의하여 조절할 수밖에 없다.

콩나물의 수요는 시중에 다른 채소류의 출하량과 가격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며 기후의 변동 또한 수요의 증감에 영향을 준다.

날씨가 좋지못하면 발작물의 작업에 지장을 주어 채소량의 출하량이 감소되며 그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대응으로 콩나물의 수요가 증가 되기도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보아서 맑은날씨 보다는 궂은 날씨에 콩나물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통례이다. 따라서 콩나물이 다 길러지는 기간인 열

흘후의 기후변동과 채소의 출하량을 예측할 수 없는것이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비탄스를 맞추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이며 이것이 거래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건이 달려서 공급을 제대로 못해줄때 거래의 공백이 생기게 되며 물건이 남아서 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관의 능력이 전혀 없기때문에 거래처 확장의 유혹과 함께 덤핑의 유혹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업자간의 거래처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는 없다. 지역적으로 친목회 또는 조합등의 임의단체를 통하여 서로의 친목과 서로의 체면에 의존하여 기득권을 인정하여주고 상호보장하여 주는 선에서의 조정이 가능할뿐, 타 지역에서 침범하는 덤핑이나, 신생업자가 새로 생겨 이에 거래처를 확보 하겠다고



張炳櫃/한국두채협회이사

나서는 데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또한 종자원료인 콩의 심한 가격의 불안정에도 덤핑의 원인은 발생한다. 콩은 1년에 단 한번 생산되며 이것을 1년내내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확기와 비수확기의 콩가격이 같을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가격의 변동이 있기 마련이며 심할 경우에는 두 배이상 폭등도 하기 때문에 매점매석의 투기현상까지도 횡행하기 때문에, 지역의 임의단체 등을 통하여 어느정도 콩나물 가격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콩값을 전지는 수준뿐이고, 생산에 따르는 제반 경비는 출혈을 감수해야 하며 헛콩이 출하되어 가격이 내려가 주기만을 학수고대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폭등 하였던 콩값이 내려갈때에 발생한다. 거래처 확장을 위한 덤핑의 호기이기 때문이다. 콩값의 하락폭을 앞질러 콩나물값의 덤핑이 저질러지고 있으며 간신히 지탱해온 업자들간의 목계와 공급 질서의 평온이 깨어지고 심한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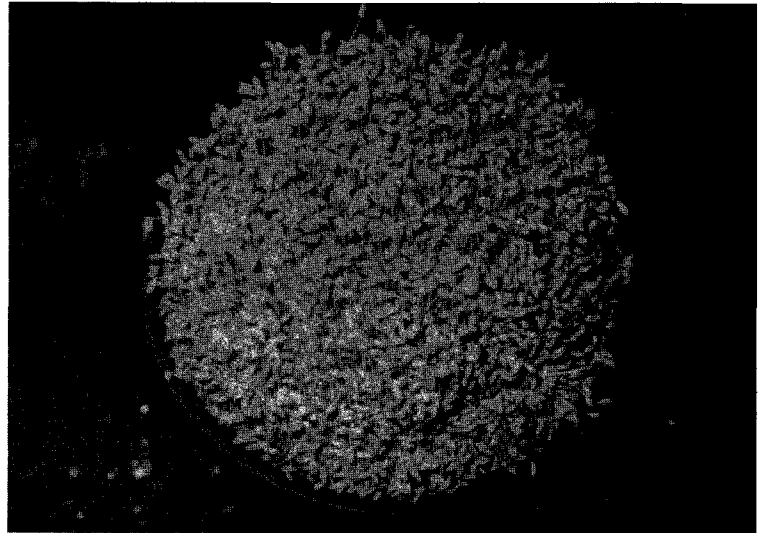
목과 분쟁이 발생되며 상호 배타적이고 불신하게 되어, 있으나마나한 친목회가 되어버리고 업자들간의 단합과 거래질서는 와해되고만다. 따라서 업자는 영세성을 벗어 버릴수가 없으며 콩나물업 자체도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찾지 못한다.

### 3. 콩나물은 제값을 받고 있는가?

20세기의 경제운영은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운송되며 대량의 소비를 유발시킬 수 있는 대량의 홍보시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콩나물은 이 네가지의 어느것에도 해당될수가 없는 취약성이 있다. 더구나 보관의 능력은 현재로써는 전무한 상태이며 하루만 지나도 상품으로써의 가치는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콩나물업 경영의 첫째조건이 알뜰하게 길러서 실속있게 제값을 받는것만이 최상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콩나물은 제값을 받고 있는가? 여기서 제값이라면 정당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값이어야 할 것이며 경제의 원리로 보아 보다 적은 노력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는다면 웬만한 기업 부럽지 않은 훌륭한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콩나물의 재배업이 그렇게 훌륭한 사업으로 까지 발전되어 있는것 같지는 않다. 어쩌면



경제의 원리를 역행하여 노력은 최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얻어지는 이윤은 최소 이하에 그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먼저,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콩나물의 재배원가부터 계산하여볼 필요가 있다.

### 4. 콩나물의 출하가격

경쟁을 잘하고 덤핑을 좋아하는 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콩나물 생산원가의 산출이 아주 간단 하다.

콩 1가마에 12만원이고 콩 1가마로 콩나물 100관을 생산하면 콩나물 1관의 생산원가는 1200원이다. 그러나 1관에 1500원을

받으면 300원이 남고 콩 1가마를 길러서 30,000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식으로 정리하면,  
원료값 1200원 + 이윤 300원 = 출고가격 1500원이 된다.

이 계산은 콩값이외는 생산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았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계산으로 경영을 해서 과연 성공할수가 있을까? 참으로 어이없는 무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콩값이외의 생산경비는 얼마나 들며 출하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먼저 계산에 앞서 생산 원가의 계산은 경영학에서도 분류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있어야 할만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문성을 무시해 버리고 일반적인 상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풀이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따라서 원료비+생산경비+유통경비+평균이익=출고 가격의 식을 만들어 계산하여 보기로 한다.

### (1) 원료비

콩나물의 원료는 종자인 콩이다. 따라서 콩이 원료의 전부라고 계산하면 된다. 물론 물을 주어야만 자라니까 물도 원료에 해당될 수 있고 그 물을 주기위한 전기료도 원료값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전문적인 계산의 방법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차피 전문성을 무시하기로 하였으니 콩값 이외의 경비는 생산경비로 계산하기로 하고,

89년 1월 현재 콩 1가마에 평균 11만원이므로 콩 1가마를 가지고 콩나물 몇관(편의상 현재 관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관으로 계산함) 또는 통콩나물의 경우 몇통을 생산할 수 있는가를 계산하면 간단히 산출된다. 찹찹이나물로 100관을 생산하면 1관에 1100원이 원료값이며 3관들이 통콩나물 43통을 생산하면 1통의 원료값은 2558원이 된다.

(〔표 1〕 참조)

### 원 료 비

〔표 1〕

원료값	생산단위	단위당원료비
콩 1가마 110,000원	2관들이통 65개	1,692원 30전
	3관들이통 43개	2,558원 13전
	찹찹이나물 100관	1,100원

\* 원료콩가격은 89년 1월 10일을 기준한 것임.

### (2) 생산경비

생산경비는 1개월동안 생산을 하기 위하여 소모된 총비용을 계산하여 1개월동안 생산된 콩나물의 양으로 나누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그 표준을 삼기 위하여 하루평균 콩 1가마를 사용하여 한달에 30가마를 사용하여 통콩나물은 3관들이 1290통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에 소모되는 총비용을 가상적으로 [표 2]와 같이 계산하여 보기로 한다.

① 자본금 : 자본금은 최소한 15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재배장을 얻기위한 임대료의 보증금, 원료의 확보, 시설비 및 운영자금등 모두가 콩나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투자된 금액이므로 그 이자액도 마땅히 생산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하면 당연히 이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② 임대료 : 콩나물 재배장을 월세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산 될줄로 알고 있으나 자기의 소유인곳도 마땅히 계상이 되어야 한다. 만일 본인 소유이더라도 콩나물 생산에 사용하지않고 타인에게 임대해 주었다면 임대료의 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③ 인건비 : 하루평균 콩 1가마를 소비하는 업체라면 최소한 2명이상이 종사하여야 한다.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급여금액과 식비가 당연히 계산되어야 하므로 말할것도 없겠으나 여기서는 두 부부간에 경영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두 부부가 직접 경영하게 되기

### 생 산 경 비

〔표 2〕

명 목	산 출 내 역	금 액
① 자본금	최소 1500만원의 은행이자	150,000원
② 임대료	건물 임대월세	150,000원
③ 인 건 비	남자 : 일당노임 15,000×30	450,000원
	여자 : 일당노임 8,000×30	240,000원
④ 난방연료비	연탄월 540장, 8개월	72,000원
⑤ 전 기 료	양수기 2대 월 300KW	30,000원
⑥ 하수도료	월평균 690톤 배출	46,900원
⑦ 용기허실비	월 30개 파손, 분실	39,000원
⑧ 수리비잡비	1일평균 3000원×30일	90,000원
⑨ 허 실 비	부패, 재고 허실등 5%	180,000원
⑩ 감가상각비	모터, 기타 시설물	10,000원
⑪ 전 화 료	월 평균	15,000원
⑫ 사무잡비	월 평균	5,000원
⑬ 제 세 금	월 평균	10,000원
⑭ 기타잡비	월 평균	10,000원
합 계		1,497,900원

\* 생산경비는 89년 1월 10일을 기준한 것임.

때문에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콩나물업을 위하여 종사하므로 당연히 인건비로 계산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일로 그만한 노력과 힘을 드린다면 표 2의 계산보다 더 수입을 올릴 수 있지도 않은가. 따라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임금이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난방 연료비 : 콩나물의 재배실에는 보통 연탄난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8 장의 연탄을 사용하며 1년중 8개월을 난방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1개월에 540장의 연탄을 사용하며 8개월에 4220장이 된다. 이것을 1개월 평균치를 내기 위하여 12로 나누면 월 평균 360장이 된다.

$$\frac{1일\ 18장 \times 30 \times 8개월}{12월} = 360장$$

⑤ 전기료 : 양수기 2대를 하루 평균 5시간 사용하면 1일 10KW 전력을 소모하게 되므로 1개월이면 약 300KW가 된다.

⑥ 하수도 사용료 : 하수도 사용료는 지방에 따라 그 시행조례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그 산출 방법은 동일하며 금액만 약간씩 다를 뿐이므로 여기서는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의한 계산으로 1마력 양수기에 1.5인치의 파이프를 연결하여 사용하면 1시간에 4.6톤이 배출되므로 한달에 150시간 배출하게 되면 690톤이 된다.

이것을 식으로 만들면  
 $4.6톤 \times 150시간 = 690톤 \times 68원 = 46,920원$ 이 되는 것이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받을수도 있는 조항이 있으나 이것은 법률적 유권해석과 배출되는 물의 오염여부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일므로 협회의 기능이 갖추어지면 꼭 쟁고 가야 할 사항이다.)

⑦ 용기(통) 허실비 : 통이 파손이 되거나 분실이 되면 계속 보충해야 한다. 유통의 형태에 따라 업체마다 갯수에 차이는 있으나 여기서는 한달에 30개로 계산하였다. 현재는 자동살수기가 많이 보급되어 사각통이 많으므로 사각통을 쓰는 업체는 손실이 더 많을 것이다.

⑧ 수리비 및 잡비 : 여기서 수리비라 함은 양수기 및, 재배실의 각종 시설물의 수리를 위하여 소모되는 경비를 말하며, 잡비라 하면 콩나물에 사용되는 자질구레한 물품의 소모경비를 말한다. 즉 덮개 비닐봉지 끈, 그리고 이외도 많으며 1일평균으로 계산하였다.

⑨ 허실비 : 콩나물은 생명을 키우는 상품이요 더구나 보관의 능력은 전혀없는 상품이다. 때문에 생산중에 썩어서 버리는 수도 있고 또 재고가 남아서 상품가치가 상실되면 버릴 수 밖에 없다. 또한 거래처에 공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분부패로 가격을 감하여

주었거나 반품이 되었다면 이것은 모두 허실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콩나물 재배업자들이 감수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며 애로사항이면서도 이것을 생산경비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남고 뒤로 밀진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여기서는 연평균으로 보아 원료금액의 5%만 책정하였으나 20% 이상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⑩ 감가상각비 : 양수기 1대를 60,000원에 구입하여 1년을 사용하고 버린다면 양수기의 감가상각비는 월 5,000원이다. 또 자동살수기를 설치하였고 3년밖에 쓰지 못한다면 설치비용을 36으로 나누면 1개월뒤 감가상각비가 산출된다. 어떠한 시설물이나 기계장치도 수명이 있기 마련이며 소모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소모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고 생산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⑪ 전화료 : 월 평균

⑫ 사무잡비 : 장부 필기구 계산서용지등 각종 사무비품으로 소모되는 비용이다.

⑬ 제 세금 : 소득세, 사업자주민세등을 말한다.

⑭ 기타잡비 : 친목회나 조합 또는 협회비 등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계산하면 한달동안 생산경비로 지출된 비용이 모

두 1,497,900원이 들었다. 1개월 동안에 콩 30가마로 콩나물 1290통을 생산하였으므로

$1,497,900 \div 1290 \text{통} = 1,161 \text{원} 16 \text{전}$ , 3관들이 1통에 1,161원이 소모된 것이며, 찹찹이나물 3000관을 생산 하였다면 1관의 생산경비는 499원으로 산출된다.

### (3) 유통경비

유통경비는 콩나물을 거래처에 배달하기 위하여 소모되는 운송경비와 거래를 튼튼히 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쓰여진 판매 촉진비를 말한다.

[표3]의 계산은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를 표준으로 삼은 것이다.

①의 연료비는 하루 평균 2,000원으로 계산하였고 ②의 보험료는 종합보험료를 1개월로 환산한 것이며, ④의 검사비 및 책임보험료는 1년에 한번씩 계속검사시마다 드는 비용을 20만원으로 책

정하여 12월로 나눈것이다. 이때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다.

⑥의 감가상각비는 차량의 노후로 인하여 가치가 소모되는 비용을 말한다.

⑦의 판촉물은 추석이나 구정 명절때 거래처에 사례로 물품을 증정하는것등을 말하며, ⑧의 접대비는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접대로 쓰여진 비용을 말하며 이것을 월평균으로 산출한 것이다.

지금까지 계산된 원료비와 생산경비 유통경비는 각 업체마다 같을수는 없다. 혹자는 이렇게 많이 드느냐고 의아해 할줄도 모르겠으나 어떤사람은 이것밖에 안드느냐고 항변할줄도 모른다.

사전에 전제하였듯이 편의상 예를들어 표준을 삼기위하여 가상으로 만든 것이므로 각자 자기업체의 실정에 맞게 계산하여 보면 원료비와 생산 및 유통경비가 산출될 것이다.

### (4) 출하가격

지금까지 계산된것을 합산하여 보면 3관날이 콩나물 하나에 원료비는 2558원이 들었다. 그리고 생산경비는 1개월에 1,497,900원이 들었으므로 이를 한달동안 생산된 통수 1290통으로 나누어 보면

$1,497,900 \div 1,290 \text{통} = 1,161 \text{원}$ 이 나온다.

그리고 유통경비는  $295,000 \div 1290 \text{통} = 228 \text{원} 68 \text{전}$ 이 된다.

따라서 평균이윤을 포함하지아니한 순수 생산가는

원료비 2,558원  
생산경비 1,161원  
유통경비 + 229원

순수생산원가 3,948원이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평균이윤은 얼마나 계산해 넣어야 할것이며 출하는 얼마에 해야할 것인가. 지금 현재는 콩값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지만 언제 또 춤을출지 모르는 콩값에 단 1만원만 올라도 콩나물 한통에 콩값이 미치는 원료비의 부담은 232원 58전이 된다. 그렇다면 한통의 원가는 4,180원이 되어버리는 형편이니 약간 여유있는 이익금을 가산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윤은 마땅히 생산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것이 경제의 이론이다. 가능한 선에서 이윤을 최대한으로 높일수록 경제의 원칙을 잘 활용한 훌륭한 경영이다.

그러나 여기서 출하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는 참

## 유통 경 비

[표 3]

항 목	명목 및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운송비 (차 량)	① 연료비 1일 2000원 x 30	60,000	경 유
	② 보험료 6개월 180,000원	30,000	종합보험
	③ 수리비 평균치	10,000	
	④ 검사비 및 책임보험	16,600	수리포함
	⑤ 자동차세 1기분 5400원	1,800	화 물 차
	⑥ 감가상각비	100,000	
판 매 촉진비	⑦ 판촉물 (사례품)	16,600	명절 2회
	⑧ 접대비 1일 2000원	60,000	
합 계		295,000원	

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경쟁과 덤핑이 지금도 행하여 지고 있으며 자기의 일당노임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윤이 없이 생산비 정도만을 겨우 건진다면 그것은 이미 경영이 아니다. 겨우 자기의 노임정도만을 얻는셈이므로 노동품팔이를 콩나물에서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콩나물업 자체도 발전할 수가 없으며 영세 업자의 딱지를 떼어버릴 수가 없다. 콩

나물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아니고 콩나물 재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콩나물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가치있는 상품을 취급해야 실속있는 경영을 할수가 있다. 업자들 스스로 경쟁과 덤핑으로 콩나물의 가치를 떨어뜨려서야 실속있는 경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가치있는 상품, 대접받는 업자 그리고 실속있는 경영을 하기위하여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

더구나 콩나물은 우리의 식탁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다. 서구식의 주방형태와 고급화 되어가는 식생활문화가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인스턴트 식품의 홍수속에서 콩나물의 자리가 자꾸만 밀려나고 있다.

이제 콩나물 재배업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따라가야 할것이다.

※ 다음에는 콩나물의 가치와 합리적 경영을 논의하겠습니다.

## 발 전

두채업의 대변지 월간「豆菜」의 발행을 축하 하오며  
두채업의 발전과  
두채업자의 권익이 향상되기를 기원합니다.

각종 콩나물통 (2관통, 3관통, 5관통)

# 대구공업사

代表 朴 相 烈

전화: (02) 418-7747, 422-1608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3-9